

단전 · 단수에 폭염까지...구례 수재민들 '삼중고'

홍수로 생채기 가지지 않은 상황에 더위 덮쳐 악취 속출
일상 복귀 최소 두 달 이상...폐사 가축 현황도 집계 안돼

구례군 수재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폭우·홍수로 인한 수마(水魔)의 생채기가 가지지 않은 상황에 폭염주의보와 단전·단수까지 겹치면서다.

11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홍수의 직격탄을 맞은 구례읍 양정마을의 수해 피해 복구 작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구례에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8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 읍내와 이 마을 전체가 잠겼다.

마을 115가구 대다수가 침수 피해를 봤다. 주택 10여 채가 붕괴됐고, 절반 가량은 부분 파손됐다.

전기와 수도물 공급도 끊겼다.

상수도 공급은 수도관 공기 제거 뒤 이날 오후 재개될 예정이지만, 전기 공급은

전선 교체 등으로 최소 나흘 이상 걸릴 것으로 구례군은 보고 있다.

급수가 이뤄져도 식기류를 쓰지 못하고 식료품이 부패돼 정상적인 취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 농가 시설물도 부서져 당분간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물에 떠내려가 죽은 가축 폐사 현황도 집계되지 않았다. 사육하던 소 1600여 마리 중 절반 가까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구례 전역에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전날 태풍 '장미' 영향으로 비가 또 내려 가재도구를 미처 말리지 못했는데, 이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축 폐사와 주택 침수에 따른 악취가 곳곳에서 나고 있다.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공무원·군인·자원봉사자들도 열악한 환경과 폭염에 힘겨워하고 있다.

마을 주민 200여 명은 복구 작업 전후 친척집 또는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데, 일상에 복귀하려면 최소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수로 기름을 먹은 소·돼지가 추가 폐사할 가능성과 경기도 모 소각처리 업체에 죽은 소를 보내야 하는 과정 전반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수해 대비용으로 만들어진 벚짚 수천 개(원형 비닐)가 마을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방안도 고충으로 꼽히고 있다.

과수·하우스 농가 안으로 휩쓸려온 물 먹은 벚짚을 처리하려면 농경지가 추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양정마을 전용주 이장은 "구례읍내 전체가 홍수 피해를 봤다. 재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 모 주택 3층에서 한 수해민이 침수된 가재도구를 치우고 있다. 시흥 전부터 380mm의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됐다. 이 마을 일대가 모두 잠겼다가 9일부터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다.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각종 지원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전남 도로시설 응급복구 민·관·군 총력...복구율 97%

담양·영광·구례 등 호우 피해 지역 찾아 토사제거작업 등 지원



지난 9일 전남 곡성군 오산면 입구 도로가 폭우로 무너진 토사에 막혀있는 가운데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민·관·군이 힘을 모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시설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육군 제31사단(사단장 소영민 소장)은 지난 10일부터 담양군 무

정면 성도리 지방도 887호선 내 토사유입 현장을 찾아 응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공방대대 소속 덤프트럭 2대와 굴삭기 2대, 군 장병 15명이 참여한 이번 지원으로 도로상 토사 500㎥를 제거해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도로사면 유실 피해를 입은 영광군 묘량면 군도와 농어촌도로 2개소 35m를 상무대 190 공병대대 굴삭기 1대와 장병 10명이 토사제거 작업 등을 펼 계획이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서도 이날부터 구례군에 굴삭기 15대를 투입해 구레터미널 앞과 국도 등에서 토사 제거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도로시설 피해로 차량통행이 어려웠던 지역을 우선 복구했고, 12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전남지역 12개 시군에서 도로시설 117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국도 17개소와 지방도 42개소, 시군도 등 58개 도로시설에서 도로사면 유실과 토사유입, 도로침수 등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전남도와 각 시군은 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자체 보유한 장비를 총 동원해 차량 통행구간 113개소를 우선 응급복구했다. 복구율은 97%에 이른다.

김정환 기자

앞으로 연령·혼인여부 안 따지고 생애 첫 주택 구입엔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세대 年소득 7000만원 ↓ 대상

앞으로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깎아준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타지 거주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이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면적 요건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득 기준은 '세대 합산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해 맞벌이는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주택을 사들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이를 환급받게 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정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 · 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